

인천 119 스토리

9
2022

현장 소방

어느 화창한 금요일 아침 모세의 기적
출동 중에 받은 뜻밖의 선물

안전 소방

태풍, 집중호우에 안전하게 대처하기



목차

함께 소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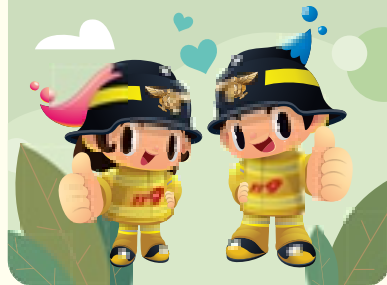
현장 소방



안전 소방



칭찬 소방



기획 소방



문화 소방



행사 소방



인천소방 소식



소방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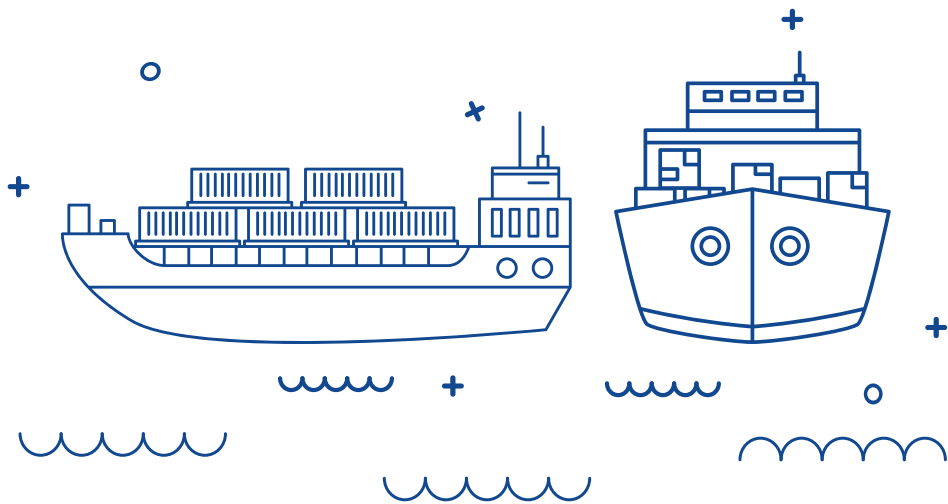
SK인천석유화학 전담의용소방대 물품 기부 행사



- 일 시** 22022. 9. 23 (금)
- 장 소** 소방본부 5층 영상회의실
- 참 석 자** SK인천석유화학,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용소방대
- 기부물품** 자동심장충격기 등 3종 24점(15,360천원 상당)
- 기부대상** 전담의용소방대 5개대(소연평, 이작, 소청, 주문, 불음)
- 주요내용** 심폐소생술 시연, 표창패 수여, 포토존 기념촬영 등
- 문의사항** 소방본부 119재난대책과 032-870-3373

중부소방서

항·포구 선박소방대상물 화재대응대책 추진



기 간 2022. 9월~11월

대 상 연안부두 등 11개소

추진내용

- 항 계류장 인접한 소화전 연결송수관 및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
- 소형선박 선주협회 및 관계기관 간담회, 연소확대 방지 훈련 실시 등

문의사항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032-870-5130

어느 화창한 금요일 아침, 모세의 기적

글 공단소방서 고잔119안전센터 소방장 변지훈

어느 화창한 금요일 아침, 동료 대원의 휴가로 근무에 들어왔을 때의 일입니다. 아침 출근 후 간단한 인수인계를 마치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을 때, 익숙한 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띠링 띠링 구급출동 구급출동 38주 차 임산부 구급출동입니다.’

38주차 임산부라니. 벨소리를 듣고, 긴장하며 지령서를 확인했을 때,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동 지령서에는 38주차 임산부이며, 진통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환자와 소방대원을 보호할 수 있는 감염 방지 보호복을 착용 후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출동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는 양수가 터지면서 아이의 머리가 보여 현장에서 응급분만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응급분만의 경험이라고는 학교에서의 훈련과 동료 소방대원의 경험담 이야기뿐이라, 긴장되며 가슴이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훈련했던 경험을 머릿속에 그리며 현장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현장 도착 후, 환자를 보았을 때 다행히 양수는 터지지 않았으나 환자 진통이 5~10분 간격으로 오고 있으며, 출산예정일은 약 일주일 남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언제 분만할지 모르니 가까운 대학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였지만, 환자가

노산 및 개인 사정 때문에 꼭 삼성서울병원에서 출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원들의 설

득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보호자는 헛걸음시켜서 미안하다는 사과와 본인의 개인 차량으로 서울까지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침 출근 시간 차량정체로 삼성서울병원까지는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는 거리였으며, 만약 개인차량으로 가다가 차 안에서 응급상황이 벌어지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대원들과 상의 후 구급차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였고, 더 이상의 지체 없이 빠르게 이송을 시작했습니다.

구급차로 이송 중 진통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구급차에서 응급분만을 할 수도 있었지만, 좁은 차 안이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고, 병원보다 감염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분만 시 환자와 아기에게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아, 우리는 마음을 졸이며 서둘러 병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일은 결국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출근 시간으로 서울로 가는 도로가 막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언제 나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던 그때, TV에서나 보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기적처럼, 바다가 반으로 갈라지듯 차들이 일제히 옆으로 비켜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감사 인사를 전할 틈도 없이 빠르게 병원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양보해준 운전자들 덕분에 빠르게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고, 환자와 보호자는 접수 후 바로 산부인과로 올라갔습니다.

며칠 후, 보호자가 안전센터로 직접 찾아와 고맙다는 인사와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히 순산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순간과 길을 터주던 차들을 생각하며, 소방대원으로서 뿌듯함을 느끼는 동시에 우리나라 시민의식에 대해 자랑스러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동 중에 받은 뜻밖의 선물

글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서성원



2022년 8월 10일, 평소와 같이 신고를 접수하고 부평서초등학교로 벌집 제거 출동을 나갔던 부평119구조대는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벌집 제거를 하는 사이, 초등학생들이 감사의 마음과 따뜻한 응원이 담긴 편지를 작성해 현장에서 바로 구조대원들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메모지에 쓴 편지에는 연필로 눌러 쓴 글자가 빼곡했고, “소방관 아저씨 감사합니다”와 “공익을 위해 땀 흘리는 모습이 멋지고 존경스러워요” 등 진심이 담긴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한여름 보호복을 입고, 구조활동을 한 탓에 땀은 비 오듯 했지만, 뽀뽀뽀뽀 쓴 글씨와 그림을 보며 아이들의 마음이 느껴졌고, 더위와 힘듦은 금세 잊혀졌습니다.

구조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한 글자씩 풀어낸 감사와 응원 메시지에 큰 감동과 보람을 느꼈으며, 아이들을 포함한 인천 시민이 매일매일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방관은 쉬는 날도 화재를 감지한다.

글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방위 유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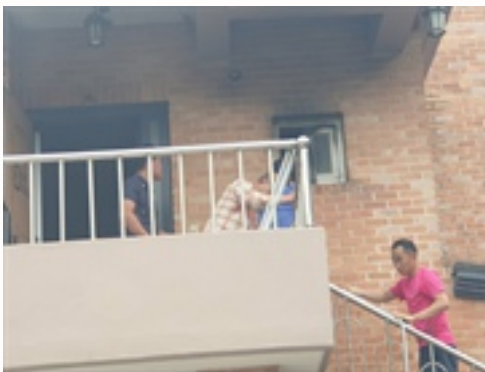
소방관은 쉬는 날에도 직감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불을 끈다.

9월 14일 소방위 박형삼, 전기복, 이우곤은 비번이었다. 이들은 평소 운동을 좋아해 자주 모여 운동을 하며 친목을 다지곤 했는데, 이날도 체력단련을 위해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한 공원에서 테니스를 치고 있었다.

열심히 테니스를 치던 와중, 하늘에서 검은 연기를 목격했다. 직감적으로 불이 났음을 알아채고, 검은 연기를 따라갔다. 연기는 공원 인근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나오고 있었다.

주택 2층 화장실에서 불이 난 것을 바로 확인하고 내부를 살폈다. 해당 집은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안에는 작업자들이 여럿 있었고,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찾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그사이 연기는 심해지고, 불꽃이 커지고 있었다.

일단 일을 분담하기로 했다. 전기복 대원이 사람을 대피시키고, 박형삼, 이우곤 대원이 불을 끄기로 했다. 박 대원과 이 대원은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불을 끌 수 있는 것을 찾다가 바로 옆 건물에서 물 호스를 발견했다. 너무 반가웠다. 이 둘은 물 호스를 끌어다가 2층 화장실 창문으로 넣어서 불을 껐다. 그사이 전 대원은 작업자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었다. 이 세 명의 빠른 대처와 업무 분담으로 큰 인명피해 없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 화재진압 및 인명대피 모습 >

좌측부터 소방위 전기복(검은옷),
작업자, 소방위 이우곤(파란옷),
소방위 박형삼(분홍옷)

“ 소방관은 비번 날에도 직감적으로 화재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몸이 반응하여
불을 끄고, 인명을 구한다. 장비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평상시 훈련과 사명감, 그리고 의지가 가장 필요할 뿐이다.”



<소방위 전기복>



<소방위 박형삼>



<소방위 이우곤>



태풍 · 집중호우에 안전하게 대처하기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가을 태풍이 늘고, 대체로 여름철 장마와 태풍보다 더 큰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 할 수 있는 태풍에 미리 대비해 피해를 예방합시다.

• 태풍 시 행동수칙

1. 창문과 틀을 단단히 고정해 흔들림과 파손에 대비합니다.
2. 하천 주변 저지대의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3. 바람에 시설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합니다.
4. 모래주머니, 물막이판 등을 이용해 침수를 방지합니다.
5. 간판 등 위험시설물 주변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 집중 호우 시 행동수칙

- 산사태 우려지역은 접근금지하고 사전에 대피장소를 확인합니다.
- 침수도로 주행 시 미리 창문을 열고, 안 열린다면 내부에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립니다. (내·외부 수위 차이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림)
- 가정 하수구 및 집 주변 배수구를 점검하고 맨홀 근처는 가지 않습니다.
- 외출을 자제하고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소방서로 다수의 신고전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대응을 위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응급상황은 119로**, **단순 침수피해 등은 110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으로서 느끼는 절대 작지 않은 보람

글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장영근



지난 8월 25일 목요일 오전,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 왔다.

누구인지, 또 어떤 일인지 몰라 긴장을 해 약간 경직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상냥한 목소리로 자신을 강화여자고등학교 지도교사라고 밝혔고, 그제야 나도 웃으며 어떤 일인지 물었다. 선생님은 강화여자고등학교 '힐링' 동아리가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일선에서 고생하는 **소방공무원에게 감사와 응원의 편지를 만들어 전달하자는 활동을 계획했고, 학생들과 방문하여 손 편지를 전달**해도 괜찮겠냐고 물으셨다.

나만을 위한 편지도 아니고, 아직 받기도 전이었지만 이야기만 들어도 뿌듯하고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당연히 가능하다는 말씀과 함께 방문 시간을 정했고, 불은 119 안전센터 직원들에게도 내용을 공유했다. 너나 할 것 없이 전화로 내용을 들은 직원들은 나와 같은 표정이었다. 분명 마음도 같았을 것이다. 곧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방문해 정성이 담긴 응원의 편지와 시원한 음료를 직원들에게 전해줬다. 쭉뚱거리는 학생들의 모습이 마냥 귀엽다가도 자발적으로 이런 행사에 참여해 편지를 써 전해주는 모습이 대견하고, 너무도 고마웠다. 학교로 돌아간 아이들을 뒤로하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런 방문은 현재까지 소방 생활을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 생활함에서도 마음가짐을 다잡게 한다며,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물론 모두가 행복하게 웃는 얼굴이었다. 이런 방문과 선물을 바라고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로 시민을 만나다.

글 중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위 임이수



지난 8월 27일,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는 중부소방서 소속 축제전문의용 소방대 7명이 모여 소방안전 체험부스를 운영했습니다.이 체험 부스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 소화기 체험, 119 안심콜홍보 등 주말을 맞아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월미도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월미도를 찾은 한 시민은 “평소에 받아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닿지 않아 아쉬웠다.”라며 “휴일에도 봉사하시는 의용소방대 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전했습니다.

고령자, 독거노인, 장애인 대상으로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파악 후 맞춤형 응급처치가 가능한 ‘119 안심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여느 소방관 못지않은 열정과 소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뿐만 아니라, 인천소방 의용소방대의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울릉도 캠핑여행

글 부평소방서 산곡119안전센터 소방장 정종일

캠핑을 시작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다.
처음 캠핑을 시작할 당시에는 텐트 하나만
들고 다니고는 했는데, 지금은 SUV 차량으
로도 감당이 안 될 만큼의 규모가 되었다.



의자, 테이블은 기본이고, 더운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타프, 추운 겨울에는 난로,
감성 캠핑을 위한 가스등까지. 보여주기식 캠핑이 되어 버렸는데, 단출한 캠핑을 원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추억을 만들어 준다는 핑계로 그동안 전국 방방곡곡으로 캠핑을 다녔
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 남들이 가지 않거나, 못 가는 곳으로 가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다.
말 그대로 오지 캠핑을 하고 싶어진 것이다. 그래서 찾았던 장소가 바로 '제주도'와 '울릉도'
였다. 이번에 소개할 캠핑은 제주도가 아닌 울릉도 캠핑이다.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고, 가려면 날씨운까지 따라줘야
한다. 울릉도 캠핑을 혼자서만 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초등학교 자녀 2명과 아내와 함께
간다는 것은 겁 많고, 게으른 나에게 있어서 큰 모험과도 같았다. 현실적으로 울릉도로 차를
가지고 갈 수 없어서 렌트를 하려 했으나, 버스로 울릉도를 돌아보자는 아내의 적극적인 의견
에 못 이기는 척 동참하였다. 각자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짐을 줄이고, 텐트를 커다란 캐리
어에 넣은 뒤 나머지 짐을 끌고, 들고 하며 울릉도로 출발했다. 그날 날씨가 좋지 못하면 배가
뜨지 못하는데, 운이 좋게도 날씨가 좋아 무사히 울릉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도착 후 처음 부딪힌 난관은 버스를 타야 하는 것과 버스 시간표를 보는 것이었다. 인터넷으로 무수히 검색하며 숙지하고 갔지만, 막상 현장에 도착해서는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울릉도 버스는 서울 지하철 2호선처럼 시간표대로 비교적 정확한 시간에 운행했고, 섬을 내선, 외선 한 바퀴 순환하는 방식이었다. 캠핑은 학포야영장에서 4박 5일 지냈으며, 무료였다. 버스에서 내려 캠핑장으로 가는 길이 힘이 들었지만, 학포야영장은 경치가 예술이었고, 캠핑장 바로 밑에 학포해변이 있어서 물놀이하기에도 좋았다. 밤에 가족과 함께 캠핑장에서 보는 밤하늘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고, 표현 그대로 별이 쏟아져 내렸다. 딸아이는 아직도 여행을 가면 울릉도 밤하늘 이야기를 하곤 한다. 텐트를 학포야영장에 설치하고, 울릉도 버스로 4박 5일 동안 울릉도 구석구석을 여행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독도에 상륙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파도가 조금만 높아도 배가 입도 하지 못하고 주위만 몇 바퀴 돌고 떠난다. 내심 울릉도까지 왔는데, 독도에도 발을 내려 보는 것이 희망 사항이었고, 3대가 덕을 쌓았는지, 무사히 독도에 내릴 수 있었다. 배에서 내린 모든 승객이 감격하며 흥분을 숨기지 못했다. 나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독도에 가면 태극기가 필요할 듯해서 울릉도로 떠나기 전, 아이들과 태극기를 직접 그려서 가지고 갔다.

울릉도를 4박 5일 버스로 일주하며, 캠핑에 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그동안 나는 보여주 기식 캠핑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어떤 것의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개인 기호와 선택의 문제이지만, 나도 나이가 들어 가는지,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캠핑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울릉도 캠핑 여행. 꼭 도전해보라 추천한다.

4가지의 소방관 이야기

글 강화소방서 강화119안전센터 소방위 송도훈



어린 시절, ‘출동! 119구조대’라는 일본 만화를 보며, 소방관에 대한 동경을 가진 적이 있다. 주인공인 아사히나 다이고의 현장에서 멋있게 활약하는 소방관의 모습을 꽤 감명 깊게 보았던 기억이 난다. 최근 인터넷 웹소설 중 소방 관련 소설이 인기가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소개할 소설은 ‘콜사인’이다.

유명한 웹소설 ‘닥터 최태수’의 조석호 작가의 작품으로, 현실적인 소방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인 강태진은 소방관으로, 화재 현장에서 팀장과 동료 한 명의 죽음을 계기로 불에 대한 능력이 생기게 되고, 이 능력을 발휘하여 ‘사람들을 구하는 소방관’으로 성장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이 소설에는 ‘라텔’이라는 특수구조대가 등장한다. 계급에 상관없이 사람을 구조하는 데에만 중점을 둔 구조대이며, 소방청

직속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한다. 팀원들의 구조에 대한 열정을 보며, 인명구조라는 숭고한 직업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두 번째로 소개할 소설은 ‘레스큐 시스템’이다.

구유 작가가 쓴 소설로, 환생이라는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는 소설이다. 주인공인 수혁은 10년동안 활동하던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하다 사망하게 된다. 이후 환생하며 퀘스트가 생성이 되고, 이 퀘스트를 통해 특수한 능력을 얻게 된다는 소설이다. 이 소설에는 한국 소방관의 안타까운 사정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같은 직업군으로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다. 그리고 팀단위의 유대관계가 얼마나 화재 현장에서 중요한지 생각해보게 되는 소설이다.

마지막으로는 장호 작가의 ‘소방관이 불의 정령술사라니’이다. 어려서 사고로 소방관인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되어버린 정호가 소방관이 되어 불의 능력을 얻게 되고, 아버지의 경험과 기억까지 간직한 채 특별재난 대응팀의 팀원이 되어 각종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게 되는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는 장비 개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근력을 증가시켜주고, 불에서 견딜 수 있는 특별 슈트, 화재현장을 정찰할 수 있는 로봇인 불개 등 현장 활동을 하면서 유용할 것 같은 장비들이 등장한다.



비록 재미로 읽었던 웹소설이지만,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시간이 된다면 꼭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

평범한 영웅

글 강화소방서 119산악구조대 소방교 백승근

뜨거운 화마 앞에, 본능의 방향과는 반대로 서 있을 때
관창을 잡은 두 손의 저릿함은
너무 짝 잡았기 때문일까
저릿한 긴장감에 가슴이 그렇게 느끼는 걸까

어딘가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이들을 생각할 때
걱정이 되고, 걱정은 긴장이 되고, 이윽고, 긴장이 기적이 되길 바란다
더욱 빈틈없이, 더욱 움켜쥔다
한시름을 놓지 못해, 잡은 손을 놓지 못한다

타는 소리, 공기호흡기의 들이마시는 숨소리만이 적막을 감돌 때
투박한 장갑이 어깨를 감싸고, 현장을 교대하며 손을 놓는다
복잡한 감정을 동료에게 말긴다
잡은 손을 놓을 때
그렇게 아주 잠시, 한시름을 놓는다

제35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기간 2022.09.27.~9.29

주관 소방청

장소 중앙소방학교(충남 공주시 소재)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화재진압 등 기술경연
- 소방드론 시범경연 및 몸짱소방관 선발대회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천소방본부

발행처 인천소방본부(예방안전과)

발행일 2022년 9월 28일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

전화 032-870-3075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119>

기획편집 유지연

디자인 · 기획 · 편집 소나기크리에이티브 주식회사 <https://www.s-creative.co.kr>